

한국 현대문학 사료(史料)연구*

이 기 철**

< 목 차 >

- I. 서론
- II. 본론
 - 1. 자료발굴의 수행과정과 자료의 문학 사료로서의 필연성
 - 2. 한국 현대문학 자료 정리를 위한 서지
 - 3. 1차(2002년까지) 조사 자료와 2차(2003년 이후) 조사 자료 대비
- III. 발굴, 조사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항들
 - 1. 시
 - 2. 소설
- IV.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 시기 작품의 결함
- V. 조사 정리된 자료의 사료적 가치
- VI. 결론

<Abstract>

A Study in materials of literary work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Lee, Kee Chul

This Research is written the study in material of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his Thesis is methodological in positivism and first object is expansion of materials of literary works. Basic material is publication Korean modern literary works in literary magazine, synthetic magazine, literary coterie magazine. example from 『Sonyon』(1908) to 『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03)

** 영남대학교 교수

Gookminmoonhak』(1941).

This Research is accomplishment of team work in researcher and research team are extensive reading domestic several magazine. investigate magazine are total 236 sort. especially this research discover fall of until now literary history and research works.

Here, facts of special mention, until now literary history descript well known literary works or literary workers. This research is descript more hiding literary works and hiding literary workers. so as, this research want preparation basic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현대문학 사료(史料)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사료 연구란 방법론상으로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research of Positivism)의 일환이다. 실증적인 연구 방법은 연구의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딜타이와 이쁘리트 페에스 이후 프랑스 문학 연구방법의 영향으로 우리 문학의 실증적 연구도 본 궤도에 올랐고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 방면의 한국문학 연구도 상당한 업적을 낸 바 있지만, 아직도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자료 발굴과 정리는 그것이 문학연구의 기초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 착수해 본 사람이라면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문학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료의 축적보다 자료의 분석과 활용이다. 아무리 자료를 산적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류하고 정리하며 그것을 재평가하여 문학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면 자료는 사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모든 자료의 더미들은 문학 연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리,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정리는 근면함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예리한 비평의 안목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현대문학 사료 정리는 부분적으로는 수행된 바가 있지만 총체적인 정리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초창기 문학에서부터 을유 해

방기까지의 사료를 정리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반세기에 걸친 한국 현대문학의 자료를 총망라하고 현대문학 잡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백 종의 서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그 작품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작품의 발표 연대와 작가, 시인,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문학사적 의미까지를 고찰하여 결과적으로는 문학사의 한 부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자료는 단순한 자료의 가치를 넘어서서 한국문학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 즉 사료(materials for history)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¹⁾

거기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정리된 작품 혹은 각종 문예사전에 이미 정리되거나 등재된 작품들은 제외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문학 작품들이 각종 교과서에 실려 읽혀 왔거나 문예사전에 실려 자료로 활용되어 온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거나 발표된 작품이 그 중심이 되어왔다. 단행본이라 해서 다 교과서나 문예사전에 등재되어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며 그 작품성이 보장되고 인정되었을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소수인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될 수만 있으면 초창기 문학 이후 잡지에 발표된 모든 작품을 발굴하고 탐색하여 그 원전을 확인하고 그런 뒤 그 작품에 대한 가치여하를 다수의 독자들에게 묻는 방식을 택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910년대 이후 발행된 각종 잡지를 통해 당대에 발표된 작품을 탐색하고 고증하는 길밖엔 없다. 실지로 1910년대나 1920년대 잡지들이라 해도 소수의 잡지들밖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 시기의 문학은 동인지들이 잡지의 대신 역할을 했기 때문

1) 한국 현대문학 자료는 당대인들이 생산하고 향수하는 것이라는 현재성(nature of present) 때문에 자칫 자료적 가치를 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거나 이 방면의 연구에 실지로 착수하고 보면, 불과 반세기 이전인 해방기의 문학 혹은 50년대 전쟁기의 작품도 이미 산실되거나 입수하기 어려운 작품이 대부분이고, 더욱이 한국 초창기 문학의 자료란 이미 원본을 구하거나 유사본을 구하는 일만도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본 연구는 21세기 벽두인 지금이라도 작품이 더 산실되기 전에 1910년대 이후의 작품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논문 착수 이전부터 그 작업을 수행해 온 바 있다. 말하자면 이 논문은 그러한 십수년 간의 필자의 연구작업의 총화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에 동인지들도 포함하여 정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그런 점, 본 논문에서는 단행본 보다 묻혀 있었던 잡지 및 동인지들의 발굴과 고증 및 정리를 우선한다.

본 연구는 1991년 이후 약 12년 동안 대학원 학생들과 이 사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의 많은 대학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문학도서관 등을 방문 조사했고²⁾ 지금도 미비한 부분의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앞으로도 더 긴 시간이 요청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현대문학의 자료를 조사, 발굴, 정리하고 그것이 한국 현대문학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게 하는 일은 문학연구 일반론 뿐 아니라 문학사 기술에는 필수적인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모든 자료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체계 속에 묶여 문학사의 사료가 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표요 방향이다.

II. 본론

1. 자료발굴의 수행과정과 자료의 문학 사료로서의 필연성

한국 근대 또는 현대문학은 주로 문예지와 각종 잡지, 신문, 동인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 만큼 각종 문예지와 신문, 동인지 등은 문학의 생산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자 문학의 숙명이 되어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학의 3대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생산자와 향유자 그리고 매개자 사이에서 매개자인 ‘책’ 즉 문예지나 동인지 혹은 종합잡지나 신문의 문예란이 어떻게 문학을 생산하고 향유자에게 전달하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작업은 작

2) 이 연구를 위해 필자와 대학원 학생들이 방문 조사한 대학 도서관은 서울대도서관 3회, 고려대 도서관 3회, 연세대 도서관 3회, 중앙대 도서관 2회, 중앙대 한국문학자료관(김근수자료실) 1회, 경북대 도서관 5회, 계명대 도서관 5회, 영남대 도서관 수시(약 20회), 국회도서관 3회, 국립중앙도서관 3회 등이다.

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못지 않게 문학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포괄적 작업이 된다. 거기다 한 문예지 혹은 잡지가 갖는 문학적 성격, 그것이 당대 사회에 이바지한 문학적 기능은 단순히 문학의 내적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시대, 사회, 문학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같이 우리 근·현대문학에 있어서 문예지 혹은 잡지나 동인지의 출현은 문학의 생산과 발전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자세한 성격 분석과 그것의 시대적 공헌, 잡지와 작가, 잡지와 문학의 관련 여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명한 업적은 아직 충분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뿐 아니라 문학의 매체가 된 이러한 잡지나 동인지들의 발굴도 지극히 편파적이고 부분적이어서 아직도 우리가 접해 보지 않은 많은 잡지나 문예지 혹은 종합지의 문예란이 어둠 속에 묻혀 있음을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필자는 통절히 느낀 바 있다³⁾.

『소년』이 1908년에 창간되면서 한국 근·현대문학이 출발하였다고 할 때, 우리문학의 출발은 바로 잡지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후 해방 전까지만 해도 약 3백종에 달하는 문예지 및 잡지들이 출현했지만, 그들 문예지나 잡지는 그것의 성격과 편집 방향에 따라 우리 사회나 시대의 방향타가 되기도 했고 사회 정의 실현의 기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예지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일반 종합잡지들도 반드시 문학 혹은 문예란을 편집의 주요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근·현대 잡지들이 문학을 사회나 시대의 계몽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나 방향타로 생각했던 것에 연유한다. 문학 동인지들은 문학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목적으로 결성한 동인지이기 때문에 문학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은 필연적인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잡지들, 이를테면, 『개벽』이나 『신여성』 『별건곤』 『조선농민』 『신생활』 같은 잡지들은 문학을 위한 잡지가 아니면서도 문학을 위해 제공한 공간이나 지면 할애가 크고 또한 그 공효가 적지 않았음은

3)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잡지 혹은 문예지들의 이름은 <본 고>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람

문학사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한 문예지나 잡지의 성격은 우리문학의 성격과 역할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면서 동시에 시대 사회의 계몽 혹은 선도 역할을 담당한 주역이었음을 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지(詩誌)나 문예지들만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시지나 문예지를 포함하여 1908년 이후 해방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된 모든 종합지들까지를 망라하는 작업이며 그러한 문예지나 잡지들이 담당하던 시대, 사회의 역할과 성과를 점검하고 가치 매김하려는 것이 또한 본 연구의 임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부하된 가장 큰 짐은 수많은 문예지나 잡지, 동인지들을 모두 발굴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일이며 그러한 부담 때문에 사계의 연구자들이 일찍이 이 연구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연구가 미진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는 약 12년 간에 걸쳐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190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예지, 동인지, 종합잡지들을 두루 조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와 소설의 내용을 카드화하였고 그것을 디스켓에 담아 현재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 연구자가 보관하고 있는 카드는 약 2천여 장에 이르지만 아직도 문예지나 잡지들의 손상과 결본 때문에 완전히 원본을 재생하여 카드화하는 일은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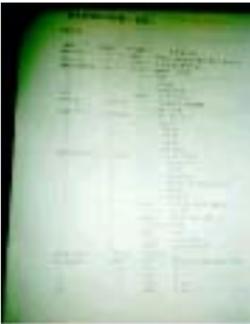
그렇다고 해도 이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일부 내용이 훼손, 산실된 잡지라 하더라도 이미 발굴,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존재하고 거기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많은 문예지나 종합잡지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조사, 보완했기 때문이다. 본고의 제2장에서 밝혀지겠지만, 본 연구진이 발굴 조사한 문예지나 종합잡지들만 해도 236종이 되며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문학적 가치를 해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한국문학이 한국 근·현대라는 시대, 사회와 어떻게 대응관계를 이루었으며 그것이 시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2. 한국 현대문학 자료 정리를 위한 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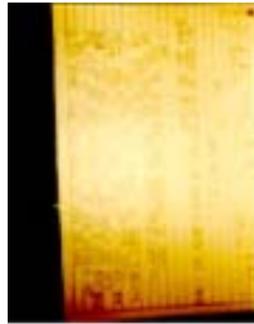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1908년에 간행된 『소년』창간호로부터 1941년 간행된 『국민문학』38호(1945.2)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1941년 이후 1945년까지는 문예지나 잡지 창간이 전무하고 을유 해방 이후 2002년까지의 잡지는 그 분량의 과다함으로 이 연구가 완성된 후에 연구할 후속과제로 남긴다⁴⁾. 뿐 아니라 해방 이후의 잡지들은 아직 산실되지 않고 계속 발행되는 잡지가 있기 때문에 입수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해방 전 문예지나 잡지들은 대부분 결본이거나 원본 발견이 어려운 처지임으로 가능한 한 그것들을 입수하고 정리하여 후학에게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방 전에 간행된 많은 문예지나 잡지들을 발굴, 조사하고 그 목록을 집성하며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에 다다를 수 없으며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 기초 작업으로 대학원 학생들과 더불어 2천여 장의 작품을 요약하고 카드화하여 그 카드와 디스켓을 연구자가 비치하고 있다.

****연구자가 비치하고 있는 카드의 규격과 내용은 사진과 같다**

(비치한 카드의 모형)



(각 카드에 기록된 내용)



4) 예를 들면 해방 후 창간된 『현대문학』만 하더라도 1956년 창간 이래 지금까지의 호수가 600호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분량의 방대함을 이 논문에 포함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따른다. 따라서 해방 후의 잡지들은 이 논문의 후속작업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 카드화된 잡지나 문예지의 형식과 내용(예)

年代	작품	작가	주제 및 내용	장르	비고
1916년9월4 일10호	청류벽 (淸流壁)	小星 (현상윤)	김영은은 이성도에게 시집가나 성도는 잡 기질만 하고 영은을 소박한다. 부모는 다시 황주사 첩으로 보내나 황은 오리집 창기로 팔아먹는다. 청류벽에서 자살한다.	소설	
1916년 말부터 1917년 초(추정)11호	萬萬波波息 笛을 울음	김여제 (金興濟)	그대의 적은 韻律이/萬人的 가슴을 흔들든 저남/가죽이 그대의 발알에 없될 여/恍惚 憧 憬의 눈물을 흘니든 저무리/아아 어디 어디/ 저 數萬의 魂은 아득이는고!/ 어디 어디/다? 어진 碑銘이나마 남앗는고!/?안인 서리/無道 한 하늘/모든 것은 다 날앗도다!/아아 萬萬 波波息笛. (제1연)	시	(시 작품은 2003.7문학 사상지에서 발굴, 재인 용)

3. 1차(2002년까지) 조사 자료와 2차(2003년 이후) 조사 자료
대비

<1차 조사 자료>

연대 잡지 이름(이는 이미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잡지임)

1900년대 ; 소년, 조선농회보

1910년대 ; 대한홍학보, 청춘 학지광, 태서문예신보, 학우(경도유학생회 간), 서울, 창조

1920년대 ; 여광, 문우, 폐허, 개벽, 신천지, 생장, 동명, 장미춘, 신민, 금성, 영대, 조선농민, 문예공론, 신여성, 신생활, 별건곤,백조, 조선지광, 조선문단, 조선시단, 조선문예, 신시단, 문예운동, 문예시대, 해외문학, 습작시대, 백치(白雉), 백웅, 신시단, 원고시대, 신소설,

1930년대 ; 시문학, 조선, 조광, 개벽 속간호, 농민, 신가정, 무명탄, 문예반, 음악과 시, 문예월간, 문학, 문학건설, 조선문학, 문학, 학원, 학생, 동방평론, 신

인문학, 낭만, 해성, 삼사문학, 예술, 출발, 시원, 창작, 시건설, 풍립, 요람, 문원, 시인춘추, 자오선, 시와 소설, 단층, 여성, 형상, 극예술, 시인부락, 맥, 백지, 시림, 신동아, 삼천리문학, 고양(高揚), 문장, 청색지, 아(芽), 응계(雄鷄), 시학, 작품, 순문예, 문학창조, 인문평론, 초원

1940년대 ; 업(業), 춘추, 국민문학

<1차 미확인 자료>

1910년대 ; 우리의 가정(서울대), 경향잡지(영남대), 公道(국립중앙), 여자(윤경), 綠星(서울대), 삼광(서울대), 서광,(연세대)

1920년대 ; 현대(서울대), 공제(김근수,고대), 계명(김근수,고대), 신민공론(국립중앙), 낙원(서울대), 연희(김근수, 연세대), 我聲(국립중앙), 활천(계명대), 신생명(김근수), 불교(김근수), 생장(윤경), 보성(고대), 申通(서울대), 문명(고대), 時鍾 (고대), 학조(서울대), 신인간(경북대),백합(서울대), 生의 聲(서울대), 한빛(계명대), 權友(서울대), 조선강단(연대),

1930년대 ; 철필(?), 대중공론(김근수), 대조(김근수), 조선학보(국립중앙), 비판(경북대, 김근수), 시대공론(서울대,김근수), 집단(연대), 백악(김근수), 제1선(영남대,계대), 만철조사월보(계명대), 신계단(김근수), 東聲(김근수), 동광총서(김근수), 중앙(고대, 김근수), 신세기(서울대), 청년조선(김근수), 사해공론(김근수), 카톨릭연구(경북대), 탐구(김근수), 학우구락부(김근수)

1940년대 ; 신시대(김근수)

위의 잡지 목록에서 1차 조사 자료는 대체로 그 작품의 내용 확인이 이루어진 잡지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 소장 자료들이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완전한 내용을 손상 없이 유지하고 있는 잡지는 드물고 대부분의 잡지들이 한두 호씩 결본이 있거나 한두 군데씩 파지나 결장이 있음은 지금으로서는 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본, 파지, 결장들이 본 연구의 진행에 크게 저해되거나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파지, 결장을 넘어서 전체적인 작품과 내용으로 그 잡지의 성격이나 사회적 기여도를 아는 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확인된 1차 조사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900년대에는 2종, 1910년대에는 7종, 1920년대에는 31종, 1930년대에는 55종, 1940년대에는 3종이다. 그런가 하면 미확인된 1차 조사 자료는, 1900년대에는 없으며 1910년대에는 6종, 1920년대에는 22종, 1930년대에는 20종, 1940년대에는 1종이다. 이 가운데서 1차 미확인 잡지란 각종 도서목록을 통하거나 김근수의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을 통해 잡지의 소재 여부는 알 수 있지만 대구, 경북 지방의 대학 도서관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잡지들이며, 또 한편은 잡지를 입수할 수는 있어도 당해 잡지가 문학 작품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특기할 사항은 이 시기의 잡지들이 New의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점과 농업정신을 선양하려는 의지를 담은 잡지들이 다수 발행되었다는 점이다. New라는 의미의 제호(題號)를 채택한 경우, 이 때의 New(新)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희구하는 정신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일본을 통해 배운 서구의 과학적인 삶을 희구하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민』(1920년대) 『신천지』(1920년대) 『신생활』(1920년대) 『신여성』(1920년대) 『신생명』(1920년대) 『신민공론』(1920년대) 『신가정』(1930년대) 『신시대』(1940년대)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농업정신을 선양하려는 의지를 담은 경우, 『조선농회보』(1900년대) 『조선농민』(1920년대) 『농민』(1930년대) 등이 그 예이다.

<2차 확인 자료>

1900년대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1908], 서우(西友)[1907],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1908], 대동흥학회월보(大同興學會月報)[1909],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

報)[1908], 교남교육회잡지(嶠南教育會雜誌)[1909]

1910년대

우리의가당[1913], 불교진흥회월보(佛敎振興會月報)[1915], 신문계(新文界)[1916], 조선불교계(朝鮮佛敎界)[1916], 녹색(綠星)[1919], 삼광(三光)[1919]

1920년대

서광(曙光)[1920년], 국우(局友)[1921], 여자시론(女子時論)[1920], 학생계(學生界)[1920], 현대(現代)[1920년], 공계(共濟)[1920], 계명(啓明)[1921], 신민공론(新民公論)[1921년], 낙원(樂園)[1921년], 청년(青年)[1921], 아성(我聲)[1921년], 문명(文明)[1921년], 갈돕[1922], 연희(延禧)[1922], 신생명(新生命)[1923년], 부인(婦人)[1923년], 시촌(詩村)[1924], 협성(協成)[1925년], 생장(生長)[1925년], 보성(普聲)[1925년], 신통(申通)[1925], 시종(時鍾)[1926년], 우라키[1926년], 신사회(新社會)[1926], 동광(東光)[1926년], 백합화[1927년], 부녀세계(婦女世界)[1927년], 사조(思潮)[1927], 예술운동(藝術運動)[1927년], 이습(而習)[1928년], 여시(如是)[1928년], 현대부인(現代婦人)[1928], 경신(敬新)[1929년], 조선강단[1929], 무산자(無產者)[1929], 농촌문헌(農村文獻)[1929]

1930년대

백두산(白頭山)[1930], 신취미(新趣味)[1930], 해방(解放)[1930년], 농업세계(農業世界)[1930], 용성(傭聲)[1931], 실생활[1931],新光(新光)[1931년], 회광(回光)[1932], 문우(文友)[1932년], 만국부인(萬國婦人)[1932], 여인(女人)[1932], 신흥영화(新興映畵)[1932년], 호외(號外)[1933], 전선(全線)[1933년], 중명(衆明)[1933년], 금강(金剛)[1933], 영계(靈界)[1933년], 신가정[1933년], 학등(學燈)[1933], 신흥조선(新興朝鮮)[1933년], 이고(梨高)[1934년], 야담(野談)[1934년], 여성(女聲)[1934], 대평양(大平壤)[1934], 소년중앙(少年中央)[1935], 동화(童話)[1936년], 백합[1938]

1940년대

기타

재건(再建), 학조(學潮), 자선부인회잡지(이상은 발행년미상)

위의 대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1차 조사 자료(2002년 전까지의 확인된 잡지)가 모두 98종이며 2차 조사 자료(2002년까지 미확인된 잡지)가 49종임에 비해 2차 조사 자료(2003년 이후의 확인된 자료)가 89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된 자료는 서울과 대구의 대학 도서관 및 국립 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 중앙대 한국학 도서관(김근수 장서)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하고 보완한 결과이다.

Ⅲ. 발굴, 조사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항들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와 본 작업의 기초가 되는 카드 정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시와 소설로 분류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

1. 시

이상에 열거한 문예지나 잡지를 중심으로 발표된 작품과 시인, 작가들을 판별해 보면 초창기인 1900년대 이후 수많은 시인.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작품을 발표한 문인들 중 대부분이 지금은 망각되거나 매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그리고 국내의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이 점은 미확인된 것이다. 이 시기에 작품을 발표한 많은 문인들이 그 이

5) 이 방면의 연구에 실적으로 남을만한 국외의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6) 예를 들면, 이혜숙, 이시화, 임현극, 임연, 허수만, 김동락, 박춘오, 최수복, 노평구, 강주호, 임혜경, 마춘해, 고마부, 윤태웅, 유춘정, 이현숙, 이종호, 이창현, 손동기, 최목동 등이 『신인문학』을 통해 잠시 활동한 시인들이고, 안병덕, 김성배, 이춘훈, 김시훈, 정동, 이일광, 김성호, 강시환, 박복순, 김월봉, 서태석, 김영, 김소하, 박승남, 윤승종, 김이초, 유재형, 송송도, 도진호, 고성언, 정춘택, 김병운, 이태경, 박창근, 김용열 등이 『조선시단』을 통해 한두 번 작품을 발표한 시인들이며, 손동선, 이성환, 이상구, 최창진, 翠空, 김수영, 삼봉, 김구암 등이 『조선농민』, 허수만, 오윤모 등이 『농민』을 통해 잠시 활동한 시인들이다.

후 작품 발표를 중단했거나 다른 문예지나 잡지에서든 매몰되어 버린 이유는 당시의 발행된 잡지의 편집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잡지들이나 문예지들이⁷⁾ 그들의 잡지의 성격에 부응하는 작품 위주로 작품을 선정하고 발표를 시켰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미성숙한 신인들을 대거 등장시킨 이유가 게재한다. 그것은 소위 아마추어라 말할 수 있는 신인들이 한두 번 당해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다가 곧 문학을 버렸거나 문학에 계속 정진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한 데 이유가 있다.

지금은 망각되거나 매몰된 시인들이 대거 작품을 발표한 대표적인 잡지는 『조선농민』(1925년 12월 창간) 『조선시단』(1928년 창간) 『신인문학』(1934년 창간) 등이다. 이 잡지들은 매호 20명이 넘는 신진 시인들의 작품을 실으면서 종간호까지 최소한 200명 가까운 시인들을 배출하였다. 이때 배출된 신인들의 이름을 예거하건데⁸⁾, 몇몇 시인을 제외하면, 그들은 대부분 전문 시인이라기 보다 아마추어 시인들임이 확인된다. 특히 『조선농민』이나 『농민』은 농촌문제와 농민문제, 가난과 궁핍, 프로문학적 성격을 가진 작품이면 작품의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작품을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억할 사항으로는, 당대의 가장 명망 있는 학자들이 시를 썼거나 소설을 썼던 일과 소위 장르의 치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영역의 전환의 예가 눈에 뜨인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문인들이나 학자들이 문학을 가볍게 보았거나 혹은 여기(餘技)로 생각한 이유가 게재하며, 또 다른 경우는 전문의식의 결여 상태에서 문학을 생산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역사학자나 국어학자이면서 작품을 발표한 경우와 그의 종생(終生)의 직업은 소설가인데 시를 쓴 경우, 혹은 시인인데 소설을 쓴 경우가 많음이 그 분명한 예이다. 예를 들면 국어학자 김윤경이 『청춘 15호』(1916년)에 시를 썼으며⁹⁾, 역사학자 현상윤이 『학지광』3호(1914년)에 시를 발표한 것이 그 예이다¹⁰⁾. 뿐 아니라 역사학자 이병도가 『폐허』1호(1920년)에 시를 발표했고¹¹⁾, 손

7) 이 문제는 문예지 보다 잡지(종합잡지)의 경우가 더 심하다.

8) 각주 7을 참조할 것

9) 김윤경, 「이른 봄」, 『청춘』15호

10) 현상윤의 경우는 이 점에서 예외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의 종생의 업

진태가 『금성』1,2호(1924년)에 6편의 시를 발표했으며¹²⁾ 법학자이며 소설가였던 유진오가 『조선지광』(1927년 7월호)에 시를¹³⁾, 소설가 염상섭¹⁴⁾, 이태준¹⁵⁾, 이효석¹⁶⁾, 평론가 김팔봉¹⁷⁾, 백철¹⁸⁾, 조연현¹⁹⁾, 소설가 김동리²⁰⁾, 김정환²¹⁾ 수필가 한혹구²²⁾가 한 편 혹은 다수의 시를 여러 잡지에, 국문학자 양주동²³⁾이

적이 역사학 쪽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현상윤은 그가 남긴 작품이 모두 46편이며, 그가 쓴 글의 종류(장르라 할)도 시조형, 신체시형, 자유시형, 산문시형, 논설형, 단편소설형 등으로 다양하다. 최시한의 논문에 따르면, 현상윤은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즉 21세부터 26세까지 6년 간 쓴 작품이 13편이 미발표된 채(개인문집 『소성의 만필 제5』에 실려 있고 나머지 15편이 『학지광』에, 17편이 『청춘』에, 1편이 『유심』에 실려있다고 하며 이 중 10편은 개인문집과 잡지에 중복 발표된 것도 있다고 한다. 최시한 <현상윤의 장르의식-1910년대 장르체계의 유통성에 대한 한 고찰> 서강어문 제3집(1983,10) 이 가운데는 작품의 장르 유분이 어려운 것이 있어 작품 「웅커리로서」를 최시한은 신체시형으로 유분하였고 김영철은 자유시로 유분하였다.(김영철, 『한국 현대시의 좌표』,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그런 점으로 보아 현상윤의 문학 의식은 대표적 아마추어리즘의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1) 이병도, 「일광의 赤橋」 『燈明臺』 『奈良의 휴식』 『폐허』1호(1920,7)
- 12) 손진태, 「만수선에서」 「작사랑」, 『금성』1호(1923,11) 「처녀의 비밀」 「나의 마음」 「병든 강아지」 「외로운 혼」, 『금성』2호(1924, 1)
- 13) 유진오, 「과악」, 『조선지광』(1927,7)
- 14) 염상섭, 「法衣」, 『폐허』1호((1920,7)에 제월이라는 호(필명)로 시를 발표
- 15) 이태준, 「지진」 「지진의 힘」, 『학지광』4호(1915,2), 「雜司谷묘지에서」, 『학지광』(1926,3), 「내 재조」 「마당에서」 「바다」, 『동방평론』2호 (1932,5)
- 16) 이효석, 「夜市」, 『학지광』4호(1915,2), 「오후」 「저녁때」, 『학지광』(1926,4)
- 17) 김팔봉, 「신록」의 2편(산문시), 『개벽』46호,(1924,6) 외 「백수의 탄식」(발표연도 미상)등의 시가 있음
- 18) 백철, 「이제 5분-빼스여중업원자매에게」, 『신여성』6권 10호(1932, 10) 외 다수 시 발표
- 19) 조연현, 「밤」, 『시립』(1939,3)
- 20) 김동리, 「호올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가느뇨」 「나 긴 밤에 낮지만」 「간이는 다시 없네」 「행로음-R에게」, 『시인부락』1집(1936,11) 외 다수, 만만에도 시를 썼음.
- 21) 김정환, 「젊은 교육자의 노래」 「벼 짜는 아가씨」, 『조선시단』6호(1930,1)
- 22) 한혹구, 「밤의 사막」 「님의 影刻」, 『신인문학』4권 3호(1935,2), 「자연의 노래」, 『신인문학』(1935,4), 「님은 나의 산」 『신인문학』(1935,6), 「破約」 『신인문학』

시와 소설을 아울러 발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그 당시의 문인들 혹은 학자들이 문학을 호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거나 아니면 장르의 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나 소설을 쓰고 발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또한 특정 잡지들은 특정인을 주요 발표자로 등장시키거나 한 두 사람의 필진이 다른 이름 혹은 같은 이름으로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뿐 아니라 『소년』은 최남선이, 『폐허』는 황석우가, 『개벽』은 김석송 혹은 김소월이, 『농민』은 허문일, 이태준이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이를테면 그들의 독무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은 육당이 주로 바다, 산, 태백산을 노래해 조선심을 고취하였고, 『태서문예신보』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문학을 번역 소개한 사실은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이며, 『개벽』은 천도교 잡지이면서 천도교의 교리를 심기 보다 민족관과 국가관, 시대 정신을 계몽하는 내용을 많이 실었으면서도 문학에서는 매우 서정성이 강한 작품들을 실어서 작품정신을 고양시켰다²⁴. 김안서, 김소월과 같은 민족 정서와 한이 담긴 훌륭한 시가 이 잡지를 통해 발표된 점이 그런 예가 된다. 『개벽』은 그러면서도 자매지라 할 수 있는 『신여성』(1923년) 『학생』(1930년) 『해성』(1931년) 등을 동시에 발행해 시대, 사회적 공헌 뿐 아니라 문학적 공헌은 물론 작품 발표무대를 최대한 넓혀 문인들의 발표의욕을 고취시켰다.

『맥』(1938년)은 전문 문인이 가장 많이 활동한 무대였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작품을 실었거나 발표케 한 잡지다. 그런 점에서 『조선농민』 『신인문학』 『조선시단』 등과 『맥』은 위상을 달리한다. 함형수, 이상, 임화, 박남수, 김용호, 서정주 등 낯익은 시인들이 모두 이 잡지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이 잡지

(1935,7)

23) 양주동, 「남천역에서」 「죽기까지」 「To」 「당신을 보온 뒤에 알었습니다」, 『신여성』(1925년6,7월호), 「사랑의 기적」, 『신여성』(1925,10), 이 외에도 양주동은 소설도 발표했는데 그 점은 소설 항목을 참조할 것

24) 『개벽』은 몇 종의 자매지를 내어 민중의 새 삶의 등불이 되기를 자임하고 그 역할을 시도했다.

를 통해 데뷔했다²⁵⁾. 1941년, 『인문평론』이 『국민문학』이 되면서 일제의 선전 어용문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잡지가 된 것이 흠이지만, 이 잡지에도 정지용, 여상현, 이용악, 유치환 등 주요 시인이 시를 발표했다. 주요한의 「실험실에서」연작 3편은 '페놀탈렌' 등 화학 약품을 소재로 한 시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견이고²⁶⁾, 김소월의 시 「不稱鍾杵」「무언」「巷傳哀唱명주딸기」등3편도 여러 종류의 『김소월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로 새로 발굴된 작품들이다.²⁷⁾

뿐만 아니라 한 잡지에 같은 사람이 이름 대신에 호를 사용하여 중복 발표한 예도 흔하다.

예를 들면, 육당=최남선, 고주, 외배=이광수, 소성=현상운은 두루 아는 필명이나 호이지만, 笑亭之翁=나도향, 산하=강문석, 춘강=고두동, 두우성=이은상, 금화산인=권구현, 兩柱=김광균, AS=김억, 백악= 김환 등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필명 혹은 호이다. 이러한 예는 많지만 여기서 모두 예거하는 것은 번거로움으로 생략한다.

2. 소설

소설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1910년 『대한홍학보』에 이광수가 孤舟라는 이름으로 단편소설 「무정」을 발표한 사실이다. 이는 그 뒤 1918년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장편 「무정」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닌가 보이며 이광수가 첫 단편인 「소년의 비애」「윤광호」를 발표하기 7년 전 일임도 기억할 만하다. 또한 현상운

25) 이 점에서 『백묘』의 문학사적 의미와 역할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 잡지는 당대 많은 시인들의 작품을 여타 문예지나 잡지들에 비해 가장 많이 실었으면서도 우리 문학사나 시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수정을 요한다.

26) 이 점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지만, 오세영이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예는 있다. 오세영, 〈先驅者로서의 理念과 文學的 現實 - 朱耀翰의 詩와 詩論〉, 『冠嶽語文研究』2집 참조.

27) 이 점 또한, 종전의 수종의 김소월 전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김용직의 『김소월 전집』, 조동일, 윤주은의 『김소월 시 전서』(문화출판사, 1979)에 『무언』을 제외한 나머지 두 편만 실려 있다.

이 『학지광』10호(1916년)에 소설을 발표하여 역사학자인 현상윤이 시와 소설을 동시에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 국문학자 무에 양주동이 『신민』(1926년 9월호)에 단편 「선물」 「거지」 「情死」 「파스」 「구십구번지」 등 5편을 발표한 사실은 특이하다. 양주동은 『신여성』 등을 통하여 많은 시를 발표했음은 윗 장에서 확인된 사실이지만 소설을 한꺼번에 5편씩 발표하고 있음은 당시의 그의 문학적 역량과 문단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그 소설의 소설적 가치 평가는 다른 글을 통해서 논의해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소설적인 구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은 그 분량만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수필가 한홍구 역시 『신인문학』에 소설 「어떤 젊은 예술가」를 써서 수필, 시, 소설을 함께 쓴 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서문예신보』는 김안서가, 『창조』는 김동인이 주재하던 잡지인만큼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런 점은 다른 잡지나 동인지들도 같은 현상이지만,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시동인지로 알려진 『백조』에 소설이 많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나도향, 현진건, 박종화가 소설을 발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잡지를 통해 노자영, 홍노작, 박영희 등이 소설을 발표하고 있음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영대』 또한 마찬가지로 김동인, 임노월, 늘봄, 수주 등이 소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노자영은 『신인문학』(1934년 7월호)에 소설 「靑猫」를 발표하였는데 ‘푸른 고양이’는 시인 이장희의 「붉은 고양이로다」나 황석우의 「碧毛의 猫」와 함께 우리문학에서 고양이를 소재로 한 문학의 사례가 되며 이는 당시 일본을 통한 프랑스 문학의 영향을 비교문학적으로 해명할만한 자료가 된다.²⁸⁾

성격과 개성이 뚜렷한 잡지로는 『조선지광』 『별건곤』 『조선농민』 등이다. 이들 잡지는 주로 프로문학을 중심으로 했거나 농지, 소작문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선지광』은 이기영, 최서해, 최승일 등이 작품을 많이 발표했고 『별건곤』은, 김유정, 송영 등이, 『조선농민』은 이익상, 최승일, 채만식, 김운정 등이 가난과 농촌, 농민 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발표했으며 『개

28) 우리 문학에서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와 프랑스의 보들레르의 영향이다. 이 점은 이기철 <이장희 연구>(작가연구의 실천, 영남대 출판부, 1986) 참조

벽』은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도 프로문학과 예술과 문학을 균형 있게 다루어 문예지가 아닌 종합지로서 문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잡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20년대와 30년대 잡지에 발표된 작품 중 염상섭의 작품과 이태준의 작품이 매우 개성이 약하고 작품의 전달력도 약하며 작품의 성격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20년대와 30년대의 대표적인 장편 작가라는 점에서 이 점은 특이한 현상이며 이것으로 보아 염상섭과 이태준은 장편에서 이론 문학적 성과를 잡지에 발표한 단편들에서는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

IV.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 시기 작품의 결함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논고를 완성하기에는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종이 넘는 문예지와 종합지 및 동인지들을 다 섭렵하고 그 내용을 일별하여 그 성격과 방향을 점검하는 데는 인력과 노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진이 조사, 정리한 많은 도서관 장서 가운데 현대문학에 관한 수종의 잡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도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수는 했다 하더라도 그 잡지들이 가진 결함, 즉, 파지, 결본들이 많은 잡지가 다수여서 이들을 다시 판독하고 보완, 정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본 연구진이 조사 발굴하고 판독한 내용들의 중요한 특징과 이 시기 문학들에서 발견되는 작품의 결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당시의 작품 수준을 평가 절하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작품과 연관된 제반 사항들, 이를테면 시대, 사회적 여건, 잡지의 편집 태도, 당해 잡지의 위상, 발행에 따르는 재정적인 여건, 인적 구성 등을 알아보고 그리하여 당해 잡지와 그 잡지에 발표된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먼저 지적할 사항은, 1920년대나 30년대의 잡지 편집 태도이다. 이 시기의

잡지 편집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롭기도 하지만, 당시의 필진과 잡지의 내용 등 잡지 발행에 따르는 일차적 요건들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네 몇 사람의 主張으로써 昨年 歲안부터 떠들던 『新友』는 잇던 意味를 띄우고 『詩村』으로 幻生이 되었습시다. 落胎 苦해 難産이나마 우리의 반갑음은 彼此一般이겠소이다. 그러나 이 兒孩를 잘 길느고 못길늬는 모르미 여러 兄弟姉妹님들의 愛에 붓치올 뿐입니다. 本誌는 오롯이 ‘목마른 魂들의 부르짖는 恨숨만을 紹介케 되었습시다. 그런데 今番 創刊만에 限해서 形便상 엇지할수 업시 일인의 主筆이 되고 말엇습시다. 우리 同人에서 第一 애를 만히 쓰는 一夢君의 시는 다음 호로 밍니다. 雲岡君도 그러습시다. 翻譯이나 달은 사람의 일흠을 백히운 글월은 언제나 絶對로 맞지 안홀 內定입니다. 적어도 우리네의 眞情을 吐한 創造品 外에는 紙面上 關係로 실니우지 못하겠습시다.

1924,4,27 밤 樂園洞에서 -(詩村編輯室에서)-29)

위의 『시촌』은 윗글 말미에 기록된 대로 1924년 4월에 발행된 잡지이다. 창간호로 보이는 이 편집후기에서 편집여적을 기록한 주필의 이름은 잡지에서는 밝히지는 않았고 다음호로 원고가 밀린 운강은 윤운강으로 추정된다. 글의 앞뒤로 미루어 이 잡지는 여러 사람의 편집동인이 함께 참여하여 발행하려던 잡지로 보이며 편집이나 창간호는 그런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안타깝다는 소회가 토로되어 있다. 운강과 일몽의 작품을 창간호에 실지 못하고 다음호로 민 것으로 보아 이 잡지에 실을 원고가 모자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은 사람의 일흠을 백히운 글월은 절대로 맞지 안홀 내정’ ‘우리네의 진정을 토한 창조품 외에는 실니우지 못하’겠다는 의욕 등, 편집인으로서의 순수한 창작품에만 지면을 할애하겠다는 충정이 눈에 뜨인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시,

悲運의 小島

29) 철자와 한자는 잡지의 원형 그대로이고, 띄워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대로 했음

니-나여

그대는 鐘路會館의 스타-일다
 그러나 人間의 吉字(吉子)는 조금도 모르고
 오죽 카츄-샤의 離別과도 갖흔 悲運의 生涯!
 하루에(春枝) 밥셋기를 엇기 위하여
 小百合에 아름다운 香氣를 뿌리며
 카나리아의 노래와도 갖치 곱다란 목소래로
 밤깊흔 酒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잇지 안나

시골의(時雨)에서 어머니은 배곶흐다하시고
 건넌집 가마쓰(松枝)에는 쌀이 갖득 차잇건만
 나는 都會의 하루꼬(春子)부라진 거리에 헤매고 잇느니

百습子 언니 왜 말이 업수
 雪子언니는 또 왜? 얼골에 愁心이 가득하오
 烽子의 설-흔 사정도 내 잘 알지만
 니-나도 비련에 우는 小島라우

1934,1,5, 30)

作者附 - 이 시는 鐘路會館 女給의 姓名을 一行에 一人씩 插入하여서 쓴 것이니 먼저 시로서 吟味한 然後의는 一編의 年센스가 잇슴을 알리다.

이 시는 작자가 부기한 말대로, 일편의 년센스가 있다. 말하자면 참다운 창작의 욕구에서 쓴 작품이라기 보다 장난처럼 쓴 희작(戯作)이다. 작자는 오수명인데 그는 작품 끝에 다시, 이렇게 쓴다. ‘가마쓰는 쌀을 담은 섬을 말함이요 하루꼬부라진 거리는 都會의 하로날을 險惡한 길에 彷徨하고 잇다는 뜻! 票는 女給의 姓名을 示함’ 그러면서 그는 ‘나의 試詩는 이렇케’했다고 덧붙인다. 시시는 시험으로 쓴 시라는 뜻, 그러므로 이 시는 진정한 시라기 보다는

30) 오수명(吳壽命), 『女聲』, 1934, 1, 오수명은 그 뒤 작품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도 작품에 대한 진정한 열의가 부족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희작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도 연유한다.

회작이라 함이 타당하다. 그런 점으로 보아, 『女聲』지의 편집태도는 위의 『詩村』의 편집태도와는 판이하다. 『女聲』은 작품에 대한 안목도 대상에 대한 비판도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장르들의 명칭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음도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예를 들면 김복진의 「제비다리」(『소년중앙』1935.창간호)는 <홍부,놀부> 설화를 동화로 쓴 작품인데 목차의 허두에 <소년동화>라 명기해 놓았고, 전영택의 「돈」(『소년중앙』1935.창간호)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벌이 따른다는 교훈적인 내용인데 <소년소설>로 명기했다. 그런가 하면 백신애의 「멀리간 동무」는 떠나간 동무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인데 <우정소설>로 명기하고 있다. 같은 장르로 분류해도 좋을 이러한 글들을 이같이 각각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역시 당시의 장르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동화, 소년소설, 아동소설, 등 명칭의 통일성이 요구되지만 이 시기까지는 그러한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장르명칭을 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생각해야 한다.

또 다른 특기 사항은 모작의 문제이다. 모작이나 표절의 문제는 시대를 떠나 창작의 세계에서는 부단히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여기에 예로 드는 두 편의 시는 너무도 잘 알려진 작품에 대한 모작(혹은 모작일 가능성)이기에 더욱 흥미롭다. 작품의 예를 두 편만 든다.

그림은 故鄕

李南極

딱어운 벗은 사정도 업시
 김매시는 아버지의 등을 쓸계
 배급홀사 어머니님 마음!
 밭머슨 어머니 밭고리 이실 때
 삼살개 졸네졸네 앞에 서고
 철부지 나 치마고리에 휘휘 감겨
 어머니 애 태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아!
 고향은 왜 그리 그리우냐?
 父母兄弟 계신 故鄉이 그림구나
 故鄉은 왜 그리 새로우냐?
 옛날에 고향이 다시 새롭고나
 그림어라 못잊어라
 내 눈동자에 박힌 故鄉
 어느 때인가 총 소리 들리든 故鄉
 참아 꿈엔들 잊힐리아! 31)

이 시는 인구에 회자되는 정지용의 「향수」의 모작이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주제의식이나 정념도 그러하거나와 연의 결구인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 리야’는 이 시의 모티브나 구성법이나 시어까지도 「향수」를 모방한 것이다. 「향수」는 1927년(『조선지광』65호)에 발표된 작품이고 「그림은 고향」은 1928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후자가 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은 시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잡지나 편집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而習』에 실린 전제 작품 수준도 대부분 아마추어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와 편집태도 역시 이런 점에서 안이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현상은 다음 시에 있다.

비 오는 날 會館 앞에서
 -花城女士에게 보내는 시

팔봉

흙 떠러진 壁 군데군데 커드란 구멍이 보이고,
 짙은 듯이 새카만 기둥들은 한편으로 기우는데, 그 우에
 낡은 개와 덮힌 지붕에 雜草 더욱 恨心한,
 오오, 황량한 이 會館 모양, 오늘도 내 눈 앞에 보임니다

31) 『而習』, 창간호, 1928.

옵바! 어제런듯 멀리 지나간 十餘年前 일-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 효주-저의 억개를 치시며
 -보아라, 주추가 놓이고, 기둥이 서고, 지붕이 다되지 아니하였니,
 이 會館, 뜨거운 피의 結晶, 우리의 붉은 마음!
 한 時인들 여기서 떠나라, 이 땅의 젊은 男女-, 이 집의 주인들,
 이 會館도 그들과 함께 푸른 하늘 아래 커나간다-하시었지요

옵바와 같이 씩씩한 사내들, 나와 같은 젊은 애들의 數 많은 옵바
 낮에나 밤에나 이 골에 뭉여서 해 가는 줄 모르고 주고받는 말, 그 장한 생각-,
 불같이 타는 듯 한 마의 한 마의 못사람의 心臟을 살구르니,
 暗黑을 헤치고 화-나게 밝은 세상 펼치어 보이드니.....

하나씩 들식, 옵바와 한가지로, 씩씩한 사내들 여기서 떠난 後,
 해가 박귀고 세월이 흘러갔서요....門은 굳게 다치고,
 雄壯한 목소래 이 큰 방에서 다시는 더 드를 수없으며,
 가슴을 벌리고 귀를 기우리는 검은 얼굴과 윤택한 머리 그림자를 지웁습니다

지금, 함박으로 퍼붓는 비를 마즈면서,
 오고가는 거리에서 除外 당한 듯 호울로 서서, 主人을 잃은
 텅뒀인 집, 넷날의 會館은, 지붕이 새여서 瀑布를 이루고,
 마루짱우에는 江인 듯이 흙탕물 굽이굽이 흘러요,
 아아, 한번 가고는 다시 못오는 길로 떠나신 옵바!
 당신의 동생 효주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옵바, 이 집을 지은 후 십년을 자라난 효주, 당신의 귀여운 동생
 저야말로, 옵바의 뒤를 잇는 이땅의 젊은 女子, 불시를 품은 당신의 繼承者!
 念慮마세요! 이집을 다시 값있게 쓰며, 빛나게 할 터이니,
 피 묻은 十年, 눈물의 十年을 이 가슴 가운데 색이려합니다

아아, 永遠히 간 옵바! 드러주세요, 이땅의
 당신과 같은 씩씩한 사내들 뭉여서 일하던 곧 큰 소래 질르고, 燈불이 밝은 곳,
 -南北에 골고루 이루어지었던 青年會館들
 지금, 꼭 같은 運命에 빠진 것과 같이 이모양으로 허려져갑니다, 그러나

念慮마세요! 당신의 동생 제가 튼튼하고, 또 저같은 젊은 피 새로히 불맹졌스니,
오오, 허러져가는 靑年會館을, 다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까

1934,8,28, 32)

이 시는 임화의 대표작인 「우리 읍바와 화로」와 너무도 유사하다. 「우리 읍바와 화로」가 1929년(『조선지광』83호)에 발표된 것에 비해 이 시 「비오는 날, 會館 앞에서」는 1934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KAPF가 2차 검거를 맞고 완전히 해산될 운명에 처해진 상황에서 쓰여진 시이다. 이 시의 핵심어나 주제는 회관, 그나마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주인 잃은 회관을 중심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에서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의 흐름이나 정황으로 보아 그것은 곧 한때 활발했던 운동본부, 어쩌면 카프의 운동본부로 추정된다. 시의 내용과 흐름은, 작중 화자인 <효주>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읍바를 기다리는 많은 후계자들이 읍바를 기리고 추앙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후계자들은 읍바가 계획했던 일들을 반드시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시의 빠뜨릴 수 없는 결점은 그것이 이미 당대에 풍미하고 당대를 압도했던 임화의 단편 서사시 「우리 읍바와 화로」와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유사를 넘어 표절이라 해야 할 만한 수준이다. 시의 발상, 시의 정조, 시의 내용, 힘과 용기를 고취하려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이념시,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도 단편 서사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긴 행과 연, 전체 구조들이 모두 그렇다. 두루 알다시피 임화의 「우리 읍바와 화로」 「네거리의 순이」등을 처음으로 단편 서사시라고 지칭한 사람도 김기진 아닌가? 어떤 연구에 따르면 김기진은 임화의 <애비>이기까지 한 인물인데³³⁾, 어쩌서 자식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 혹은 표절까지 하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당시의 문단 사정과 문학 수준에 대한 반성이 다시금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V. 조사 정리된 자료의 사료적 가치

32) 『청년조선』, 창간호, 1934,8

33)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문학사는 항상 ‘문제적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되거나 ‘문제적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이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문학사들이 그러하고 일본이나 유럽의 문학사들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랑송의 『프랑스 문학사』³⁴⁾, R.E.Spiller의 『미국 문학사』³⁵⁾가 이러한 지적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듯하나 큰 안목에서 보면 이들도 반드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우리 문학사들은 고전문학사일 경우, 왕조별 혹은 편년식 기술을 해왔거나 아니면 소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기술해 온 것이 상례이다. 그런 점을 보완하고 더 큰 문학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문학 작품이나 소위 2, 3류라 지칭되었던 문학작품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그 미덕을 기리는 문학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품의 자료를 완비해야 하고 그 많은 자료들을 읽고 그 가치를 판별해야 한다. 본 연구가 진행하려는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그러한 목적과 수행에 있다.

본 연구는 서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차 조사에서 98종의 잡지에 수록된 작품들을 확인했고 2차 조사에서 138종의 잡지에 수록된 작품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도 입수하지 못한 잡지의 작품들과 입수된 잡지들의 결본이나 파지가 작품의 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 점은 임의로 판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가능한 한 전후 맥락과 잡지의 성격, 편집자의 주된 방향등을 미루어 작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고 한다.

『개벽』이 『신여성』이나 『혜성』을 함께 내어 사회나 문학적 기여를 별도로 시도했다고 할 때, 전자와 후자의 작품적 변별력은 어떤 것인지? 김윤경이 『청춘』15호(1916년)에 발표한 「이른 봄」, 현상운이 『학지광』3호에 발표한 「寒菊」, 이태준이 『학지광』4호에 발표한 「지진」, 이효석이 같은 잡지에 발표한 「夜市」는 그들이 공인된 잡지에 발표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새로이 평가할

34) 랑송의 『프랑스 문학사』는 실증적인 방법론에 의한 문학사로서 자료 중심으로 서술된 문학사이다.

35) R.E.Spiller의 『Cycle of American literature』는 문제작 중심이 아니라 순환론적 문학사이다.

필요가 있다. 특히 『학지광』 4호는 1915년에 발행된 잡지인데 그때의 이태준의 나이는 12살(1904년 출생), 이효석의 나이는 8살이어서 동명이인의 작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폐허』1호에 발표된 이병도의 시 「日光의 赤橋」등 3편, 『개벽』46호 발표한 팔봉의 산문시 「신록」등 3편, 『폐허』1호에 발표한 齊月 염상섭의 시 「法衣」, 『금성』2호에 발표한 손진태의 「처녀의 비밀」등 4편, 『조선지광』1927년 7월호에 발표한 유진오의 시 「과악」, 『신민』11호에 발표한 斗牛星 (이은상)의 시 「근작 4장」(사공, 우차부, 축복 등)등의 작품에 대한 사료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민족주의적이고 천도교 교단에서 발행한 잡지였던 『개벽』에 김석송, 김소월 같은 서정적 작품이 대량으로 발표된 이유, 『농민』에 허문일, 이태준이 작품을 다수 발표하게 된 동기, 『조선지광』에 이기영, 최서해, 최승일, 등 프로문학가들이 작품을 많이 발표하게 된 성격과 편집 방향, 『조광』에 김유정, 송영 등 가난과 농촌의 빈핍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이 주로 발표된 이유, 시 동인지로 평가되고 있는 『백조』에 노자영, 나도향, 현진건, 노작(홍사용), 회월(박영희), 월탄(박종화)등이 소설을 발표하고 있는 현상, 노자영이 『신인문학』1934년 7월호에 「靑猫」를 발표, 지식인의 가면을 벗긴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쓴 사실, 『별건곤』에 이익상, 최승일, 김운정, 채만식 등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작품들이 많이 발표된 배경, 『조선농민』에 무명시인이 대거 작품을 발표하게 된 과정과 작품의 경향, 『신인문학』 『조선시단』의 대량의 작품 수록과 작품성 부족, 가장 많은 시인들의 작품을 대거 발표했으면서도 기존의 문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貓』의 문학사적 재평가, 1941년 이후, 『국민문학』에 시인으로는 정지용, 여상현, 이용악, 유치환 등이 작품을 발표한 현실과 소설가로는 이태준, 박노갑, 정비석, 안수길, 이무영 등이 작품을 발표한 현실, 『조선시단』 6호에 (1930,1)에 발표된 김정한이 시 「젊은 교육자의 노래」등 2편에 대한 평가 등, 총체적인 잡지와 작품의 내외적 배경을 재구상, 재평가해 보아야 한다.

특히, 당대에 가장 문제점이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가? 문학이 드러내고자 하는 당대의 이슈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점들을 많은 잡지나 문예지의 작품을 검토하면서 재평가해야 한다. 이 점은 이미 숙지된 작품들을 떠나 아직 미확인되고 미정립된 작품, 이를테면 군소작품이나 3류작품

들에서 그 맥락을 찾아 시대, 사회적 배경과 연관시켜 이해해야한다. 사료적 가치에 이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와 목표는 여기에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 발굴, 확인된 작품만으로도 그러한 목적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더 많은 자료의 확인이 남아 있어서 차츰 그 진가에 도달할 것임을 첨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단일 주제의 연구로는 다소 광범위한 느낌이 있다. 그러기에 시간적 범위를 해방 후의 잡지나 동인지는 다른 논문으로 미루고 1900년대에서 해방기까지로 기간을 제한하였다. 문예지나 잡지의 발행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언론 행위의 일환이며 언론행위는 당대 사회나 시대를 비판하고 계도하는 중추 역할을 스스로 담당한 책임자임을 자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들 잡지들은 일제의 검열을 감수해야 했고 더러는 검열에 의해 삭제, 폐간 처분도 감내해야 했다. 폐간 후 다시 속간한 잡지들은 그만큼 검열의 난관을 극복한 사례이며, 더욱이 재정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1,2호로 중단된 잡지들은 그러한 여건들을 이기지 못해 폐간하거나 속간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그것은 우리문학사에서 최초의 잡지인 『소년』이 우리 대한 소년들의 웅대한 꿈을 키우고 바다와 같은 이상을 심어주기 위해 창간된 것임과 『학지광』이 학문의 중요성을 깨우치려는 목적, 『개벽』이 천도교 잡지이면서 사회의 계몽자 역할을 한 것, 『신생활』 『신여성』 『신민』 등이 새로운 삶의 개척과 나라의 부강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한 점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잡지들은 문학을 통하여 당대 국민들을 계몽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며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만큼 문학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잡지들에 나타난 문학 특히 시와 소설들을 분석하고 당대 사회와의 대응관계를 논하는 것은 문학을 통해 시대, 사회의 개척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 작품을 통한 본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라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거기다 잡지나 문예 동인지들의 문학적 발전에의 기여는 그 잡지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문학은 피어나지 못했거나 발전이 없었을 것임을 알게 하는 증좌이다. 『창조』 『폐허』 『백조』 『영대』 『신문학』 『조선문단』 『조선시단』 『문예운동』 『문예공론』 『신시단』 『시건설』 『맥』 『문장』 『인문평론』 등의 예가 이를 명백하게 말해준다. 위의 잡지들 중 『개벽』은 1920년 6월 25일 창간되어 1926년 8월 1일 전72호를 내고 폐간되었다가 1946년 1월 1일 속간되어 1949년 3월 25일 다시 폐간되며, 총 81호를 낸 가장 수명이 길고 사회, 문화적 역할을 크게 한 잡지이며, 『별건곤』은 1926년 창간되어 1930년까지 간행되어온 비교적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잡지다. 『신민』이 1925년 5월 창간되어 1931년 6월에 폐간하기까지 통권 67호를 발행, 『신여성』이 1923년 11월 창간되어 1934년 4월에 폐간 통권 26호를 발행했다. 이외에도 『조선문단』 『조선시단』 『신인문학』 『조선농민』 『맥』 『조선지광』 『문장』 『인문평론』 등이 다년간 간행된 잡지들이며 대부분의 문학지나 문예 동인지들은 우수한 종합지에 비해 단명하게 끝이 났다. 그러나 그것의 수명이 길었거나 짧았거나 간에 그것이 당대의 우리 문학, 우리 사회에 끼친 공헌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런 점, 본 논문 4장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의 바램은 이 논문이 단순히 과거 문학의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 적용되며 후학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이 논문과 후속 논문이 나와야 하는 것이며, 그랬을 때 그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잡지의 발표 연대, 발표 시인과 소설가 및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단행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나간 1900년대 이후 해방기까지의 우리 문학을 작가나 시인 혹은 작품 이름만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금방 찾아볼 수 있어 일종의 문학사전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바다 위의 용소년>은 그 제목만으로 소년 10권(1909년 11월호)에 발표된 최남선의 바다와 소년의 기상을 노래한 시임을 알 수 있고, <뽕>은 개벽 64호(1925년 12월 1일)에 발표된 나도향의 소설로, 정조를 파는 안현집과 안현집을 탐내는 삼돌이가 뽕을 따러 가서 벌이는 정사 이야기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 문학 공부를 위한 연구자나 일반

학생들, 심지어는 입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연구 평가서의 역할과 문학의 줄거리 및 사전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료가 되어 그 활용도가 넓고 높을 것으로 믿으며 그 점을 위해 본 연구진은 정진할 것이다.

주제어 : 현대문학 사료, 실증주의, 서지, 문예지, 종합잡지, 자료의 문학사적 가치, 자료의 시대, 사회적 가치 (Materials of history of modern literature, Positivism, a bibliography, a magazine of literature, a magazine of synthetic, value of materials of history of literature, value of materials of periodical, sociological)

참고 문헌

잡지; 조선농회보(1호-23호), 우리의 가뎡(1호-9호)
 공도(1호-5호) 여자계(1호-5호),
 유심(1호-3호) 소년1호-23호,
 학지광 1호-30호, 태서문예신보 1호-16호
 창조 1호-21호., 여광 1호,
 문우 1호-5호, 폐허 1호-2호
 삼광(1호-3호) 공제(1호-7호),
 청년(1호-107호), 신민공론(1호-4호)
 낙원(1호), 연희 1호-8호
 장미촌 1호, 신천지 (복간2호)
 백조 1호-3호, 단탁 1호,
 활천 1호, 현대평론 1호-10호
 如是 1호. 불교 1호-63호,
 생장 1호-5호, 보성 1호-3호
 時鐘 1호-4호, 학조 1호-2호

개척 1호-4호, 금성 1호-3호
폐허이후 1호, 영대 1호-4호
생장 1호-5호, 문예운동 1호,
문예시대 1호-2호, 해외문학 1호-2호,
습작시대 1호, 백치 1호-2호,
백옹 1호, 신시단 1호
원고시대 1호, 조선시단 1호-8호,
문예공론 1호-2호, 조선문예 1호-2호,
신소설1호-5호, 무명탄 1호,
문예반 1호, 시문학 1호-3호,
음악과 시 1호, 문예월간 1호-4호,
문학 1, 1호, 문학 2-1호-3호
문학건설 1호, 조선문학 1호,
형상1호-3호, 극예술 1호-5호
문학창조 1호, 신인문학 1호-14호,
삼사문학 1호-3호, 예술 1호-3호,
출발 1호, 시원1호-5호,
창작 1호-2호, 문학 1호,
시와 소설 1호, 시건설 1호-8호
낭만 1호, 시인부락1호-2호,
풍립 1호-5호, 요람 1호,
단층 1호-2호, 시인춘추 1호-2호
자오선 1호, 삼천리문학 1호-2호,
고양 1호, 청색지 1호- 8호,
맥 1호-4호,芽 1호
응계 1호, 시림 1호-3호,
시학 1호-4호, 작품 1호,
백지 1호-2호, 순문예 1호,
초원 1호, 엽 1호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20년
조동일 한국문통사 지식산업사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일조각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어문각
정한모, 김용직 한국현대시요람 박영사
문덕수 편 한국문학대사전1,2권 성문각
문원각 편 한국문학대사전
김영삼 편 한국시대사전 을지출판공사
김재홍 편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고려대 출판부
외 다수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